

# 가장 정확한 에이즈 검사는 무엇일까?



이 주 실 |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기술로서 HIV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항체 검사방법이며, 언론에서 '유전자검사'로 소개된 HIV 바이러스의 핵산을 검출하는 검사법이 HIV 감염여부를 묻는 문제에 정답을 맞추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8월 여러 신문지면에 'HIV 검사 구멍', '날벼락, 10년간 음성 받기 에이즈' 등의 제목으로 마치 에이즈 검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작성되는 이유는 AIDS 검사의 정확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된다.

내가 혹시 HIV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 속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게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문은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게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현재의 검사 방법이 HIV항체를 검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HIV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하는 사람이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보건소와 병원 중에서 어디에서 검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체가 더 정확할까 등등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스럽고 의심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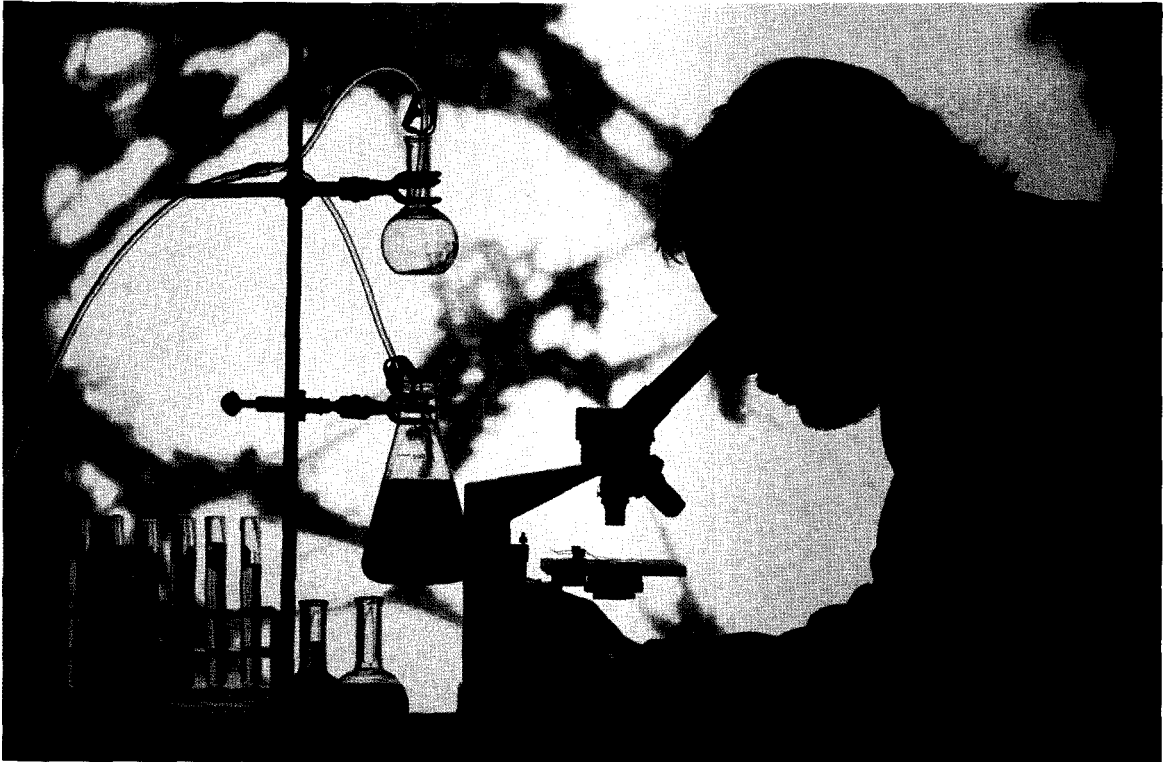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항체음성 HIV 감염'이 발견되면서 현행 항체검사 위주의 검사체계에 대한 우려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 팽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기술로서 HIV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항체 검사방법이며, 언론에서 '유전자검사'로 소개된 HIV 바이러스의 핵산을 검출하는 검사법이 HIV 감염여부를 묻는 문제에 정답을 맞추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유전자 검사는 극소량의 바이러스의 존재도 증폭과정을 통하여 검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방법이지만, 유전자 검사도 위양성과 위음성의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즉 PCR 단독 결과만으로 HIV 감염을 판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모든 HIV 검사에 사용하는 기관은 전세계적으로 없으며, 결과의 신뢰성이 높은 항체검사를 HIV 감염의 검색시험으로 이용하고 있다.



HIV 검사법을 주요검사법과 보조 검사법으로 나눈다면, 항체검사는 그 결과의 재현성과 신뢰성, 방법의 간편함, 저렴한 경비 때문에 주요 검사법으로 사용되며, 항원 검사와 유전자검사 등은 항체 검사의 결과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검사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HIV 검사는 병원 및 보건소에서 HIV 검사의 주요검사법인 HIV 항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 다시 국립보건원에서 최종확인검사를 받는 체계로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반복적인 검사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최근에 발견된 '항체음성 HIV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항체검사를 불신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체 검사는 신속 정확하게 HIV 감염 여부를 짐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HIV 검사의 최우선적인 검사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신문 보도처럼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항체음성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현저한 면역결핍에 의한 에이즈 증상을 특징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 의하여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임상 의사들에게 홍보하고, HIV 검사를 위하여 항체검사로써 효소면역법, 입자응고법 및 웨스턴블롯 이외에도 임상적 증상에 의한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보조검사가 요청되어지는 경우와 국립보건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항원검사와 유전자검사를 수행하여 HIV 감염여부의 정확한 결과 판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성생활을 통한 에이즈 예방이다. 만약 에이즈가 염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이며, 검사 결과의 해석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다.

요즈음과 같이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최신의 정보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 자신의 건강은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갖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이 기우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걱정인지를 진료를 담당 한 의사 또는 검사 기관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